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4일 (윤달 5월 21일) 금요일

"금호타이어 부실매각 반대, 단체행동 결의"

생산직 근로자 이어 광주·곡성 일반직·현장관리자 결의문 발표

"중국에 매각 진행…기술·해외자산 확보 후 '먹튀' 가능성 우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광주·곡성공장의 일반직·현장관리자 사원 750여명이 '해외 부실매각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해외 부실 매각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과 노조 등에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에 이어 광주·곡성공장의 일반직·현장관리자 사원들도 '해외 부실매각 결사반대'를 외치며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해외 부실 매각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과 노조 등에만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일터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곡성공장 사원 750여명이 지난 12일 현지 공장에서 각각 열린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사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우리의 노력을 외면한 채, 규모·기술력·영업력 등 모든 면에서 금호타이어보다 뒤처지는 중국 더블스타로 매각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전체 임직원은 물론 거래처와 협력업체들까지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기술과 주요 해외자산을 확보한 후 국내공장을 고사시키는 일명 '먹튀'를 할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감을 전했다.

이들은 소중한 일터를 지키기 위안 방안으로 '4가지 결의' 사항을 발표했다.

사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금호타이어의 기술 보호, 고용 창출 등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더블스타에 회사를 부실매각하는 것에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금호타이어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업계 최고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생력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채권단을 향해서는 "내부 구성원과 지역정서에 반하는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금호타이어 스스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임형택 기자

광주 중국문화원 3년 만에 백지화…'차이나센터' 대체

중국 정부, 1국가 1문화원 원칙 고수… 9월 개관

광주시가 차이나 프렌들리(중국과 친해지기) 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중국문화원 광주분원 유치 프로젝트가 3년만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중국의 '1국가 1문화원 원칙'에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까지 겹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광주시는 대신 문화원 기능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는 차이나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최근 관련 예산과 장소 섭외까지 모두 마쳤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6기 윤장현 광주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8월, 중국 문화부장관에서 중국문화원 분원 설치를 제의한 데 이어 9월에 분원 유치를 대외적으로 발표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호남선 고속철도(KTX) 개통,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을 앞두고 문화수도 광주와 중국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3월에는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광주분원 유치 문제를 국제교류담당관실과 관광진흥과가 협업해 추진토록 했다. 문화전당 소재지인 광주 동구청도 수년째 중국문화원 분원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3년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 광주분원 유치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었다. 우선 중국 정부의 '1국가 1문화원 원칙'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국 외교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문화원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게 부동의 원칙이었다.

중국문화원 관계자도 "국가마다 수도에 문화원을 하나씩 두고 있을 뿐 2곳을 운영하거나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대선 전후로 불거진 사드 배치 문제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시는 중국문화원 분원은 어렵다고 보고 대체 시설로 '차이니스 코너'를 추진했다가 최근 이를 '차이나센터'로 확대 개편키로 방침을 정했다. 사직도서관에 마련할 예정이었던 차이니스코너가 33㎡로 협소한데다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장소를 호남대 공자학원으로 옮기고 공간도 330㎡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 1억5000만원도 1차 추경 등을 통해 확보했다.

한국인들에게는 중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어, 태극권, 서예, 전통요리, 전통악기 교육, 비즈니스 컨설팅, 무역아카데미 등을 제공하고 중국인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고 관광안내를 위한 콜센터 기능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운영 주체는 광주시고, 전용공간 제공과 인력 지원은 호남대에서, 중국 관련 자료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은 중국 총영사관에서 각각 맡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국문화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체 시설로 차이나센터를 설키하게 됐다"며 "역할과 기능은 중국문화원과 흡사하고, 운영 성과를 봐서 확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는 현재 중국계 6793명, 한국계(조선족 등) 3838명 등 1만여명의 중국 국적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신봉우 기자

Photo 漫評

정계 은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파문이 불거진지 17일 만에 나온 공식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 전 대표는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계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사진= 뉴시스